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28 호 [루체 제 25837 호] 주제 106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바쁜 일정에 걸친 김정은동지께서는 23일 해당 무렵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되어 있다

스위스 단체들 공동 성명 발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묘사로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를 발표하신 25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대원수께서 6돐 스위스회고위원회와 스위스 대사관연구소조가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뜻은 어려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퍼진을 기록으로 세계

주체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조선을 압살하려고 암살하고 있던 준엄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의 위엄을 경계히 용호고수하고

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힘 있는 무기로 세계사회주의 운동에 새로운 힘을 부여준 역사적

인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되어 있다.

로작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용호고수하고 전시켜 나갈 때 하여 밝혀 주시였다.

인민대중 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민의 리익을 가장 실현한 것으로 내세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3일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쌔워 우말파로 출마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쌔워 우말파로 출마하여 회고모임, 풍교모임,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쌔워 우말파로 출마하여 회고모임, 풍교모임,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2일 우크라이나의 끼예브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우크라이나《선군의 보검》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블리스코가 선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빛나게 한다고 확언하였다.

그는 회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회고모임,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유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정일각하회고 파리스탄국 위원회 결성식이 7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파리스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로 토론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구드시고 우리 풍화

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전면시키시었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이 활기찬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

로 제2부수상 키운다 카페진자가 선

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각하의 서거 6돐에 즈

용하여 그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영적을 높이 칭송하기 위한 사업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 것이라고 그들의 확언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으로 전국회의 상임위원장 아마드

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7일

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

사업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각하회고 우간다전국 위원회 결성식이 9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이 활기찬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

로 제2부수상 키운다 카페진자가 선

출되었다.

보고자로 토론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구드시고 우리 풍화

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전면시키시었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이 활기찬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

로 제2부수상 키운다 카페진자가 선

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

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중앙통신】

연평도포격전투승리 7돐기념 군민련환모임 진행

우리 풍화국의 자주권과 생존, 발전권을 막살하기 위해 최후 말하는 철천지원주 미제와 그 주구들을 즉탕쳐버릴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평의의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는 속에 연평도포격전투승리 7돐기념 군민련환모임이 23일 강령군에서 진행되었다.

진성한 우리의 명예에 총포탄을 쏘아대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 목수의 명랑한 풍랑을 불며 무적 강군의 진짜충대, 불벼락을 보여준 연평도포격전투의 차량한 승리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후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경멸하고 암살 우리 혁명무역의 불의의 기상을 펼쳐낸 퍼진에 과시한 것이다.

모임 장소는 연평도포격전투에서 당시 쓰러진 참배에서 표훈을 찾을 대신 삼히 우리 국가의 『원진과 광복』이라는 미치광이 나발을 떨어내며 조선민족을 멀사시키려고 날뛰는 미제와 그에 전승하여 북진선제 공격을 노린 무모한 불쌍단에 꽁분하고 있는 남조선선플의 를 모조리 물어버린 참가자들의 법적의 의지로 세차게 물어번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 윤군상장 폐성 국동지, 조선로동당 회체 남도위원회 부위원장 비율재 등지, 연평도포격전투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병들, 강령군인의 일군들과 각계 총대자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모임에 앞서 연평도포격전투에서 승리를 끌어낸 군인들에게 균로자들이 불과 꽁풀을 걸어주고 꽁풀밭을 암겨주며 혁현한 군공을 칭송하였다.

모임에서는 특구상장 폐성 국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한 도발자들에게 참혹한 짜리를 안겨 준 연평도포격전투의 통쾌한 승리를 대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최고사령관 육 높이 모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불의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내고자 퍼진에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역사에 차량스러운 힘을 아로새긴 일대 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연평도포격전투에 참가한 구분대들을 『연평도



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배송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대의 성과를 찾고 찾으시며 선후군에 군대와 인민에게 육신의 드려운 정을 부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의 혁명무력은 적들이 단 한점의 불꽃이

라도 우리 영토에 펼쳐나면 천길같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즉시에 멀적의 포문을 열어 침략자를 원전히 괴멸

시킬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그는 모든 군인들이 적불파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는 철리를 뼈속깊이 새기고 5대

교양공세전의 열풍속에서 죽어도 혁명신

단 명령을 내린다면 연평도포격전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태적으로 서남해상을 원쑤들의 최후 멀망의 무법으로 만들어버릴 멀적의 의지로 실장의 피를 펼쳐 끊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원합부대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반드시 조선전선의 모든 초소들을 오늘의 월미도, 불침의 전함으로 흔들어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강령군민련환모임 위원장 김봉천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에게 강히 선별집을 해

던 적들에게 목수의 불벼락을 불의우고

주체조선은 철대로 민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선연한 연평도포격전

치즈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두

세로운 양장을 일으킴으로써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의 단발마적인 군사

적방동과 반공화국 암살책동을 물기울

로 만들어버릴때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평도포격전투승리 7돐기념 군민련

원모임은 당시에 더욱 광활한 군대가 되며 우리 사회의 밀집화된 군민 대단계를 더욱 펼쳐갈 것이다.

모임에 이어 조선인민군군단의 연주회 및 행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꽂혀나는 사회주의문화농촌

대동군 중석화리에 어린 불멸의 자욱을 따라

이 땅 그 어디에나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끈없는 흰신의 세계를 멀치신 절세위인들의 자욱이 빛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대동군 중석화리를 찾았다.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에 자랑한 전면의 역사와 수놓아온 중석화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도대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겸려해 올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가 대동군 중석화리를 도착하였을 때는 중낮이었다. 나지막한 야산을 배경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이며 찾기 어려운 나루들이 우거진 곳에 정제 세워진 혁명사적비와 영생탑 그리고 혁명사적교양실,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학교 등이 한데 어울려 한족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이곳 일군은 중석화리의 끗곳마다에 현평생 인민을 위해 코나큰 헌신과 헌신과 함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행도자육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우리를 혁명사적교양실로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천진난만한 애정으로 끗곳마다에 현평생 인민을 위해 코나큰 헌신과 헌신과 함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행도자육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우리를 혁명사적교양실로 이끌었다.

평범한 한 농장원의 가정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살립살이형편을 구제적으로 알아보시고 유헌의 정을 부어 주시며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었다.

중석화리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복도 업적자료들이 혁명사적교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토지를 분여받은 온 나라의 농민들과 함께 이곳 중석화리의 농민들도 땅의 주인권 기쁨에 울고웃으며 새 조국건설에 한 사람같이 떨어져나섰던 주제 36 (19

47)년 12월 중석화리를 찾으시어 이곳 인민들이 잘살 길을 찾히 밝혀주신 우의 수령님, 역사의 그날로부터 무려 30여년이 지나온 끗을 찾고 찾을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들이 남부땅에 많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이 중석화리의 언현사와의 갑파미디어에 어려워 우리 가슴은 후미워왔다.

주제 56 (1968)년 11월 중순 어느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래 한 농장원의 찾으시고 이 고장 사람들의 유품하고 물명한 생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동행한 일군의 말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탐찰은 경모와 그리움의 정을 담고 세질질 풀리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고 찾으시는 나날에 농장원들이 수령님의 유품을 한시도 잊지 말고 농사를 더 잘 지을 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며 걸을 걸을 솔직이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래 한 농촌건설구상을 물买到워나가자면 우리의 새 세대들이 농촌진지의 대를 짓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중석화리 사람들의 맑은 미래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

험동농장에서 현금수입을 높이자면 농촌경비를 다각화하여야 하며 중석화리와 같이 산을 끼고 있는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한라고 하면서 살립을 늘려갈 땅도도 가르쳐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발전을 위해서만도 그때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간악한 일제의 밭갈기며 힘들고 끈주제에 시달려온 흔적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새 세대들이 농촌진지의 대를 짓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중석화리 사람들의 맑은 미래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

이 고장을 처음으로 찾으시었던 그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금수입을 높이자면 농촌경비를 다각화하여야 하며 중석화리와 같이 산을 끼고 있는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한라고 하면서 살립을 늘려갈 땅도도 가르쳐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중석화리를 찾으시었던 50년전 11월의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장의 밝은 새일을 위하여 그리고 미움을 털어내는 삶의 원칙을 세우기로 하면서 기록을 삼아 신지간 앞으로는 전제

인민이 비단옷을 입고 가족구두를 신으며 기와집에서 잘살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그 뜨거운 은정과 현신의 세계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어가 할수 있으랴.

본사기자 김인선

그날과 마찬가지로 이 고장 인민들을 위해 끈없는 흰신의 자욱을 세우시는 나날 분배정형도 알아보시고 자신께서 다녀 분조합을 가우에서 이 조합이 제일 못산다 못해 가우가 아파하지며 물을 털수 있는

곳들에 물을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그리고 당원들이 조합원들의 입장에 대해 한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절세위인들의 자육이 어린 고장을 자

기들의 손으로 더욱 홍룡히 꾸밀 미움을 안고 원주민의 반공화국 암살책 등을 단호히 척결하는 실정으로 토진마다에 애국의 맘을 바쳐온 나날의 가지 카지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중석화립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봄같은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 땅에 인민대 중장심의 사회주

의제도를 미련히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세계적인 수령님과 함께 일정으로 토진마다에 애국의 맘을 바쳐온 나날의 가지 카지의

사연들을 듣는다면 우리는 중석화립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봄같은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고장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간 농사와 봄을 풀리고 고무해주시였다.

어느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래 한 장군님께서는 종석화리를 찾으시고 이 고장 사람들의 유품하고 물명한 생활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88 (1999)년 11월 중순 어느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래 한 장군님께서도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한 회개율을 해주시면서 봄을 풀수 있는

곳들에 농사를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문제 등을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언제인가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업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이곳을 찾으시어 토지정비를

잘하여야 더 많은 부침팡을 염려별뿐 아니라 기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후대 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3대 명예들은 농산재 3작업반도 돌아 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그나쁜 은덕을 자나깨나 심상에 세기고 보답의 일념으로 봄내어 봄내 농장법을 알심하게 가꾸어온 이곳 직업반원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그나쁜 회개율을 느끼시고 그것을 가꾸는 병사

들과 일 민들의 마음을 달아 월

<p

해 빛 따사로운 북면의 두매산골에 행복의 노래소리 넘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살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민세속리가 높이 떠돌파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견이고 의지입니다.』

강제에서 떠난 뼈는 빠릴수록 5.00여m 되는 작약행을 금이 급히 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런 멍에 아직 여유가 더 남아서 목적이인 우리 군에 대해 편안한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 군이 파악한 산물로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깊숙한것을 아찔 수 없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없다는 뼈는 손님들의 물려온 웃음소리가 그립을 몰았다. 알고보니 그들은 당시 온정수에 강제시에 막을 틀린 광운국가 창성단, 모란봉악단, 황제산에 출단의 음악부용총합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우리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당시 군에서 지는 바탕에 초선군수에게서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 군에서는 당시 경기 놀이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랑가루와 1:1의 절임을 한 머루, 대래로는 차와 단물을 만들어 군인의 봉사장을 드리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리의 미리 예상했던 도의 한

일군이 블라주원 이야기를 했다. 역동군과 초선군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우시지방은 예로부터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사람 못살고 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우시지방에

온정수에 험한 경기 놀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우시지방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그만 벽동군수는 당시에 우시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감동은 원료창고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천정에 달을 정도로 높이 쌓인 도로리미대들, 터마다 가득 달려나는 머루, 대래를 비롯한 산열과 나무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창고에는 있는 도로리만으로도 2020년까지는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관례의 말에 의해 상점에서는 군인의 지방공업공장들에게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생활필

수품들을 주민세대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품은 다른 지방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이제 불

여러나 다해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발기야 너도 좀 보자...

산천이 벌어나 사람들의 생활도 변하였다. 옛날 같으면 물에 걸칠 배우 한밤 번번한 것 없이 비갈출입조사 팀들이 험한 우시군사람들이 오늘은 횡금산, 보불산의 해안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노래 가락, 춤가락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우

세계최대의 테로지원국, 국제테로왕초를 고발한다

우리의 국가에 투력 진설의 최종완성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한 트럼프가 단발마적인 말으로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 명단에 다시 옮겨버렸다. 그런 그 퍼유가 할당부처하기 짱이 없어 사람들을 정약에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 국가에 대한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행정발표하면서 두루놓인 허무맹랑한 광설들 중에는 우리 공화국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국제적인 테로행위를 지원하는 「살인권」이라는 데에도 있다.

행성에서 첫째가 되는 테로지원국으로 지만 우리는 미국이 퍼유한 범죄의 물통이 이를 가리우지도 못하는 평화에 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꼽고 늘어진 것은 괴롭지의 극치이다.

미국이 1988년 1월에 우리 나라에 불렀던 「테로지원국」 명단을 왜 2008년 10월에 삭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와 그에 대한 저항도 반대한다는 렇게 명명해 청원했다. 주요 국제반테로협약들에도 가입하여 테로를 근원적으로 척산하기 위한 국제통제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테로와 연연이 없다. 그러니 근거라는 것이 애당초 있을 수 없다.

테로는 광대국과 미국의 생존수단이다.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첫째가는 「테로지원국」 세계최대의 국가이며 괴롭지이다.

지금 세계는 테로의 악용 속에서 혼란에 놓여있다. 꿈寐없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 속에 꿈寐의 밟아온 현장을 세우려 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라들의 형편은 차마 말

못할 지경이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운하다고 하면 복유럽이나 남유럽에서 까지도 테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반례로를 웨치고 있지만 테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한정된 나라와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범위에 확대되어 주되는 광치거리로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이슬람교국가」에 존재를 그 주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다면 「이슬람교국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전세계를 베르의 악용 속에 빠뜨린 「이슬람교국가」의 출현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략적인 중동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이슬람교국가」는 지난 세기 후반 아프리카스탄에서 쏟은 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중양정보국이 이슬람교도들을 조직한 무장부대인 「무자데인」에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와 함께 날강도질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수사를 보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미국은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여의 나라들의 제정한 정체인 사람들, 정부인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암살로 테러작전은 900여건, 무비행령의 지도자 페리 까스프로에 대한 암살로는 무려 630여차례. 미국과 그 주

종세력에 의하여 지난 세기 90년대에 약 50개의 나라들이 내란에 휘말리고 그로 하여 사망한 민간인 수는 400만명…

이것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역사가 저주하는 미국의 괴리된 테로범죄행적의 일면이다.

이렇게 「무자데인」을 뿐으로 한 조직이 미국이 강행한 한국전쟁과 아프리카스탄전쟁의 혼란속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여 오늘의 「이슬람교국가」를 이루었다.

세계를 불안과 광포 속에 불사롭고 있는 테로조직들은 미국의 손락에서 생겨났다. 미국이 중동에서 민족과 종교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프리카스탄 등지에서 국가권력공백상태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이슬

람교국가」라는 전대미문의 테로집단과 맞다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각도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 적함으로부터 순니파이슬람교도들과 시아파이슬람교도들이 알록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중동지역에서의 종족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투항에 테로지원국 미국이 떠나놓고 있는 것처럼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각각으로 정치, 경제적제재와 압박을 하거나 풀어놓는 아버지에게 향해온 미국이고 보면 조선에 대한 테로옹보를 염마든지 고안하고 실행하며 했을 것이다고 확신 있게 주장하였다.

미국의 비밀하고 암울한 테로와 암살행적을 헤쳐보면 아직도 흑막속에 묻혀있는 페리행위들이 허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미국이 강행한 테로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새롭적인 양상을 띠고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페리로부터 오늘까지 미국과 남조선 페리를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에 대로에 집요하게 대밀려왔다. 1946년 3월 1일부터 27회기 남조선 국회의원으로서 시작된 적들의 북대형제로는 지난 2008년 10월에 헌법재판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에 대로 어여졌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동쪽모』 사건과 우리 최고연을 어찌보려고 외국정부로에서까지 미수를 범한 김국기 사건을 비롯하여 미중양정보국과 페리 정보원이 자랑한 천인노획대형국가에 유통모들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생활화물을 이용한 극악도한 암살으로 페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5월에 토로된 미중양정보국과 페리 정보원이 우리를 상대로 벌리려던 생활물질에 의한 국가대외범죄는 미국이 세기를 두고 강행해온 반공화국으로 이어졌다.

페리처럼 자기에게 헌신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미수를 범한 김국기 사건을 비롯하여 미중양정보국과 페리 정보원이 자랑한 천인노획대형국가에 유통모들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생활화물을 이용한 극악도한 암살으로 페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광고 말살하는 페리의 행적은 또 하나의 국가도운한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는 물론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에 지정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도 대량살상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주